

“올해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 2월 온라인 주민설명회 거쳐 5월 기본계획 완료 목표

순창군이 이달부터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이미 농촌에 구축된 지역자산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이미 조성된 하드웨어와 효율적인 연계, 액션그룹 발굴과 사람과 산업 그리고 마을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순창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추진단장 및 사무국장, 사무원으로 구성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을 구성, 건강장수연구에 임시사무실을 꾸렸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앞으로 추진하게 될 세부사업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마련하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다음달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전반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한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해 각 읍면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주민의견과 고충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많은 시설들이 구축되고 다양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들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데 미흡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황숙주 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사업발굴과 액션그룹 양상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신활력플러스사업단(063-653-8707) 또는 순창군 건강장수사업소(063-650-1546)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9개 분야 49개 내용 담은 책자 발간

남원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9개 분야 49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내용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3억 원 이하는 50%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기존 주택·온실 보험료의 52% 지원율을 85%로, 상가·공장 보험료의 50% 지원율을 87%로 상향하며,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도내임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지역을 확대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하고,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려는 소(한우) 및 그 어미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비 일부 지원이 신설되었으며, 오는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 책임강화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다.

또한 청년마투에는 1층 회의공간, 2층 스터디공간의 조성, 주민등록상 남원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동아리’에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가족여행객에

게만 도내 1박 이상 숙박 시 지원했던 여행비 지원 대상을 가족, 친구, 동창까지 확대하며,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1학년 부터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

북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주민 중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의 현금지원이 신설되었고, 중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상하수도 요금 감면(최대 월 1,730원)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중 2021년 이후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검정고시 또는 Tpick 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는 10~50만원, Tpick은 10~40만원을 지원하며,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난임 진단 검사비를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생후 14일~35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설한다.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분야, 지원인원 등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전자어권 발급 기록이 있는 사립에 한하여 정부



남원시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여 여권사실증명 6종, 근로복지공단증명서 1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1년을 맞이해 달라지는 제도를 업무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전광판,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대응

임실군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출산가정에 군 자체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첫째아 및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 이상 800만원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환급 ▲기저귀 구입비용을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년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임산부에게 임신부 이송(교통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조기진단 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품질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강화

임실군, 사업계획 수립 등 위한 회의 가져

임실군이 고품질 지역 농산물유통 활성화 사업을 위한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군은 지난 15일 통합마케팅 협의회 위원장인 김영민 부군수가 주재한 가운데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2020년 사업결과 보고 및 2021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군 통합마케팅협의회는 7개의 공선 출하회(복숭아, 딸기, 토마토, 고추, 양파, 오이, 방울토마토)와 5개의 농업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임실고추농산물가공판매(주)) 및 행정기관(임실군청, 품질관리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2012년 설립된 이후 104억 매출을 시작으로 매년 10%이상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9,028톤 출하량에 170억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9,096톤 출하 실적과 198억 매출을 올려 역대 최대 성과를 이뤘다. 이날 통합마케팅 협의회에서는 2020년 사업 정산보고와 사업별·품목별 성과공유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올해 사업계획은 공선출하농가의 수수료 부담경감, 공동선별 확대, 판매 마케팅 등에 중점을 두어 6개 분야에 대하여 1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군은 올해에도 임실군과 농협 협력사업인 임실군 농산물유통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출하량 9,500톤, 200억 목표달성을 위하여 6억5,000만원을 투자, 공선출하 조직의 내실화 및 취급 품목의 고품질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지유통센터는 올해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6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토마토 선별장(700㎡)을 신규 설치 선별 효율화를 기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워크 온 걷기 챌린지 진행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새해에도 걷기를 희망하는 군민을 위해 ‘워크 온 걷기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인기를 이어간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앱인 ‘워크 온’을 활용해 워크 온 걷기 챌린지를 진행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0년 7월 처음 워크 온 앱을 활용하여 걷기 챌린지를 실시할 때 워크 온 앱 가입자는 201명이었으나 1월 현재 워크 온 앱 가입자는 420명으로 200명이 늘었다. 걷기실천을 또한 지난해 7월 51.16%에서 6개월 후 같은 해 12월에 58.29%로 7.13% 향상됐다.

보건의료원에서는 걷기 챌린지 실시 후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설문 참여자 128명 중 92.18%가 걷기 챌린지 사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참여자 중 87.5%가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성공물품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공하자는 의견이 22%로 많았으며, 그 외 건강물품이나 생활물품이 뒤를 이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걷기 챌린지를 꾸준히 참여해온 인계면 최모씨는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챌린지 성공시 성공물품도 받을 수 있어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며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함께 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 성공 물품을 모바일 상품권이나 건강물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들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발발챌린지나 걷기 좋은 길 홍보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해는 순창군민 모두가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도시재생 청년 시범프로그램 본격 가동

남원시에서는 2021 도시재생 청년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공동체 및 단체 5개팀과 함께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청년시범 프로그램을 본격 실행한다.

앞서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청년공유 공간인 커먼스페이스를 활용한 청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21 도시재생 청년공모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및 단체를 1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 바 있다.

도시재생 커먼스페이스에서 실행될 이번 청년시범사업들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특색 있는 의견 등이 반영된 다양한 문화 활동과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줄 청년과 예비청년(청소년)이 함께하는 토크쇼 제작 6회를 비롯해, 남원의 이야기를 현장형 게임과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원도심을 탐방하며 사진촬영 및 스케치로 기록하는 프로그램 2회, 청년예술가와 함께 초등학교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국악기를 만들어보고 민속놀이와 함께하는 국악공연 6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서 관촌파출소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집중

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 관촌파출소는 관내 금융기관 및 이장단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날이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피싱사기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직접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메신저나 카카오톡 피싱 등 새로운 수법의 피싱사기는 금융기관 종사자도 눈치채지 못할만큼 진화해 일반인들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이에 금융기관 직원 및 주민들을 상대로 최근 범죄수법과 피해사례, 이에 대한 예방법 및 대처법 등에 대해 맞춤형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